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 간 발전관계에 대한 소고*

조 태 영**

국문초록

남부 술라웨시의 술라파으파(Sulapaq Eppaq)문자는 인도의 팔라와(Pallawa)문자에서 발전된 인도네시아의 인도계통문자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인도계통문자들 중 어느 문자가 어미문자로서 술라파으파문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는 술라파으파문자가 남부 수마트라의 수랏울루(Surat Ulu)문자로부터 발전되었다는 추측을 토대로 그 발전경로에 대해 소고해 본다. 유형적으로 두 문자는 선비강음을 표기하는 문자소를 공유하며 문자소의 외형과 배열순서가 유사하다. 유형적 유사성은 두 문자 간의 발전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남부 수마트라의 말레이(Malay)인들과 남부 술라웨시의 부기스(Bugis)인들은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상인과 바닷사람으로 유명했다. 말레이 상인들은 14세기경부터 남부 술라웨시를 방문했으며, 부기스인들은 15세기경부터 남부 수마트라의 무시강 하류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14세기 경 남부 수마트라에서 사용된 수랏울루문자는 양측의 상인들을 통해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되었으며, 이후 술라파으파문자의 정립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어: 문자단일기원설, 문자차용의 요소, 술라파으파문자, 수랏울루문자, 인도네시아 인도계통문자

* 본고를 읽고 건설적인 제안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 한국동남아시아연구소 정회원, ctaeyoung@gmail.com

I. 들어가는 말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된 문자는 약 20여 종이 넘는다(조태영 2015: 47). 이들은 계통에 따라 인도계통문자와 아랍문자, 그리고 로마알파벳이다.¹⁾ 인도계통문자는 약 5세기부터 사용되었고, 아랍문자는 약 11세기부터,²⁾ 그리고 로마알파벳은 약 16세기부터 말레이어를 표기하기 시작했다.³⁾ 특히, 로마알파벳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를 기록하는 문자로 승격되면서 지역어들 또한 두루 기록하고 있다. 즉, 이들 세 가지 계통의 문자들은 전체적으로 약 1천 5백년간 인도네시아의 문자로서 그 전통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Casparis 1975: 1).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토착’ 문자를 언급할 때, 보통 인도계통문자만이 포함된다. 아랍문자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지역어들을 표기했지만, 이슬람의 강한 상징성 때문에 토착문자라고 보기 어렵다. 로마알파벳은 서구침략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근대국가

-
- 1) 2009년부터 동남부 술라웨시의 짜아찌아(Cia-Cia)족 사회에서 한글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문자들을 네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글은 사용기간이 짧아 인도네시아의 문자로서 그 전통을 확립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한글은 인도네시아의 문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인도계통문자와 아랍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사용된 시기는 지역어의 기록어부에 따라 달라진다. 인도네시아의 첫 인도계통문자인 팔라와문자는 400년 동부 칼리만탄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산스크리트어를 기록하고 있었다(Vogel 1918: 167-168, 231-232). 이후 팔라와문자는 7세기경 남부 수마트라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에서 사용되면서 지역어인 말레이어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Casparis 1975: 25). 아랍문자 역시 첫 사용은 각각 1048년과 1082년 브루나이와 동부 자와의 러란(Leran)에서 제작된 묘비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당시 아랍어를 기록하고 있었으며(Othman et al. 1990: 7-8, 92-95), 지역어의 기록은 1303년 트렝가누(Terengganu) 문자비에서 말레이어를 기록하면서 시작되었다(Othman et al. 1990: 47). 즉, 인도네시아에서 인도계통문자와 아랍문자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각각 5세기와 11세기이지만, 지역어를 기록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각각 7세기와 14세기가 된다.
 - 3) 1521년 11월 8일 말루쿠(Maluku)의 티도레(Tidore) 섬에 도착한 마젤란(Magellan) 탐험대의 서기관인 피가페타(Pigafetta)는 현지인들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필요한 425개의 말레이어 어휘를 로마알파벳으로 기록하였는데(Labrousse 2001: 167), 이 목록은 로마알파벳으로 기록된 최초의 말레이어 문헌이다.

의 면모를 갖추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토착문자는 아니다. 하지만 인도계통문자는 약 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어와 문화에 적용된 여러 외형과 체계로 재탄생되어 지역사회 활동의 전반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토착문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들 토착문자들은 자와(Jawa), 발리(Bali), 수마트라(Sumatra),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 남부 술라웨시(Sulawesi), 그리고 누사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에서 사용되었다.⁴⁾ 이들은 그 어미문자(prototype)인 인도의 팔라와(Pallawa)문자로부터 탄생된 후손문자들로서 이들의 발전경로는 다음과 같다. 약 5세기 동부 칼리만탄과 서부 자와에서 처음 사용된 팔라와문자는 약 7세기경 남부 수마트라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에서 말레이어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약 8세기 중반부터 자와의 메당(Medang) 왕국과 싱아사리(Singasari) 왕국, 그리고 마자파히트(Majapahit) 왕국에 이르는 약 15세기까지 자와어를 기록하는 카위(Kawi)문자로 발전되었다. 카위문자는 다시 두 가지 경로로 발전을 거듭했다. 한 경로는 약 9세기 말과 11세기 초부터 각각 발리어와 순다(Sunda)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발전되었으며, 다른 경로는 약 13세기 말 싱아사리 왕국으로부터 수마트라의 말라유(Malayu) 왕국에 유입되어 북부의 바탁(Batak)문자와 남부의 수랏울루(Surat Ulu)문자로 이어졌다(Kumar 1996: XVI).

토착문자의 발전경로는 하나의 어미문자인 팔라와문자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그리고 자와 간에 반복 차용되어 각 문자로 재탄생되는 일관된 경로를 보여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남부 술라웨시의 술라파으파(Sulapaq Eppaq)문자⁵⁾가 발전된 경로는 정확

4) 본고의 모든 인도네시아어 단어는 2004년 국립국어원(문화관광부 고시 2004-11)이 발행한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용례집』 중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한글표기 방식을 따랐다.

5) 예로부터 야자나무의 한 종류인 롬타르(Lontar, *Borassus Flabellifer*) 잎을 기록매체

히 알려져 있지 않다. 술라파으파문자는 남부 술라웨시에 이슬람이 유입되기 전인 약 15세기부터 사용되었고(Caldwell 1988: 171), 유형적으로 아부기다(abugida)⁶⁾인 인도문자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토착 문자들처럼 팔라와문자로부터 발전되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Tol 1996: 214). 하지만 인도계통문자들의 발전경로 중 어느 시기에 어떤 지역의 토착문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남부 술라웨시에 유입되어 술라파으파문자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학자들은 남부 수마트라의 수랏울루문자가 술라파으파문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Casparis 1975: 66; Hunter 1996: 12; Pelras 2006: 230-231). 이러한 이유는 다른 인도계통문자들과는 다르게 두 문자 간에 유형적 유사성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펠라스(Pelras)는 이러한 유형적 유사성을 토대로 두 문자 간의 발전 관계를 전제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400년 동부 칼리만탄 쿠타이(Kutai) 왕국의 팔라와문자 사용과 900년 마닐라(Manila)에서 말레이어를 기록한 팔라와문자 구리판이 제작된 것을 주목했다. 그의 추측에 따르면 900년경 수마트라 스리위자야 왕국으로부터 필리핀에까지 팔라와문자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400년경 팔라와문자가 처음 사용된 동부 칼리만탄으로부터 가까이 인접한 남부 술라웨시에 인도계통문자의 영향이 전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은 수랏울루문자 또는 팔라와문자가 남

로 사용했기 때문에 흔히 롬타라(Lontarak)문자라고 부르지만, 부기스(Bugis)인들은 ‘술라파으파(Sulapaq Eppaq: 사각형)문자로 일컫는다. ‘롬타라’라는 용어는 술라파으파문자뿐만이 아닌 장양장양(Jangang-Jangang)문자와 빌랑빌랑(Bilang-Bilang)문자 또는 아랍변종문자인 세랑(Serang)문자까지 포함된 남부 술라웨시의 전체적인 문자를 지칭한다. 남부 술라웨시에서 사용된 다른 문자들에 대해서는 조태영(2015) 참조.

6) 아부기다는 음절을 표기하는 인도문자의 특징으로서 자음으로 이루어진 문자소에 모음 /a/가 붙어있으며, 다른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문자소의 위, 아래, 그리고 앞, 뒤에 구별기호(diacritic)를 사용한다.

부 술라웨시에 소개된 경로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지만, 술라파으파문자의 발전경로에 대한 가능성 있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열린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남부 술라웨시의 술라파으파문자가 남부 수마트라의 수랏울루문자로부터 발전되었다는 추측을 근거로 두 문자 간의 유형적 유사성과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가능성 있는 발전경로에 대해 소고해본다. 이를 위해, 피셔(Fischer 2001: 64)의 ‘문자차용의 요소’를 기반으로 두 문자 간의 유형적 유사성을 확인하여 두 문자의 발전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후 수랏울루문자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되었는지에 대해 가능성 있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 그 발전경로를 소고해본다. 본고는 술라파으파문자의 정립에 영향을 준 어미문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유형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부 수마트라의 수랏울루문자를 그것의 어미문자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남부 수마트라와 남부 술라웨시 간 문자발전경로에 따른 상호접촉과 교류를 추론해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II. 문자단일기원설과 인도네시아 인도계통문자의 발전경로

1. 문자단일기원설과 문자발전

인류사에서 문자의 출현과 발전은 보통 단일기원설(monogenesis of writing)과 다원기원설(polygenesis of writing)로 설명된다(Gelb 1952: 212-220). 단일기원설은 모든 문자들이 하나의 어미문자(the earliest prototype)에서 발전되었다는 이론이며, 다원기원설은 다수의 어미문자를 통해 발전되었다는 이론이다. 양측의 논쟁이 있었지

만, 오늘날 학계에서는 겔브(Gelb 1952)와 슈미트(Schmitt 1980: 325), 그리고 피셔(Fischer 2001: 8, 32-33) 등을 통해 단일기원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상의 많은 문자들이 단일기원설에 따라 하나의 어미문자로부터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차용과 변용 때문이다. 특정 문자가 다른 사회에 수용되어 새로운 문자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차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새로운 언어의 음운체계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체계의 보수작업인 ‘변용’을 거쳐야 한다. 특히, 변용의 과정에서 차용된 문자는 새로운 음운체계에 따른 문자소의 보수 및 가감, 그리고 새로운 언어사회의 세계관이 반영된 외형으로의 교체 등을 통해 유형적 발전을 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자는 새로운 언어사회로의 차용과 변용을 통해 계통이 뺏어나가는 동시에 유형적으로도 발전을 이루게 된다(권중성 1999: 73).

오늘날의 완전한 문자⁷⁾라는 개념에서 지구상의 초기 어미문자는 기원전 6,000년경 남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의 수메르인(Sumerian)들이 사용한 췌기(Cuneiform)문자이다(Fischer 2001: 32-33). 즉, 단일기원설대로라면 모든 문자는 오늘날까지 약 8천년 동안 췌기문자로부터 반복적인 차용과 변용을 통해 계통과 유형이 발전된 후손들이었다. 인도네시아 문자발전사에서 인도의 팔라와 문자는 1천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토착문자들을 발전시킨 어미문자이지만 세계문자발전사에서는 췌기문자 이후 약 5천년 뒤에 등장한 셈(Semitic)문자로부터 계통과 유형이 다시 발전된 브라흐미(Brahmi)문자의 먼 후손 중 하나일 뿐이다. 즉, 인도네시아의 토착문

7) 피셔(Fischer 2001: 32)는 한정된 기호 내에서 주어진 음가대로만 읽을 수 있는 체계화된 표음법을 오늘날 이해하는 완전한 문자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의사소통의 목적이어야 한다. 2)내구성 재질 위에 인공적 도해 표시로 기록되어야 한다. 3)사람의 말을 인습적으로 표기함에 따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자들로부터 그 발전경로를 역행하면 팔라와문자와 브라흐미문자를 거쳐 셈문자에 도달하며 마지막으로 쎄기문자에 이르는 단일발전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자로부터 다양한 후손문자들이 발전되었어도 이들의 계통을 구분하고 어미문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계통의 문자들끼리 공유하는 유형적 특징 때문이다. 동일한 계통의 문자들 간 유형적 특징이 공유되는 이유는 문자가 차용된 후 겪는 새로운 언어와의 변용은 그 문자의 원래 유형에 기반 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정 어미문자가 후손문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적 요소로는 ① 문자개념, ② 문자개념과 표기방향, ③ 문자체계, ④ 문자체계와 문자소, ⑤ 문자체계의 일부분, 그리고 ⑥ 문자소의 일부분 등이다(Fischer 2001: 64). 따라서 특정 문자들 간 문자체계(언어표기방법으로 음절 표기나 음소표기 등)나 문자소의 순서, 표기방향, 그리고 문자의 외형 등이 비슷하다는 것은 이들이 같은 계통이거나 또는 발전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후손문자로의 발전을 위해 어미문자가 겪는 변용의 과정 중 또 하나는 문자소의 보수작업이다(Fischer 2001: 64).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음의 표기를 위한 변종문자소(Variant Grapheme)가 추가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문자소가 삭감된다. 음운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언어로 차용된 문자는 문자소의 가감이 부분적이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음운체계가 확연히 다른 언어에서는 문자소의 교체가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전자는 문자소의 가감이 적은 만큼 어미문자의 유형적 특징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자(母子) 간의 유형적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언어가 음운체계가 비슷한 인근사회의 언어일 가능성이 큰 만큼 그 발전관계는 가깝다. 하지만 후자는 문자소의 가감이 크고 전체적인 만큼 어미문자의 유형적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언어가

음운체계가 상이한 먼 거리 사회의 언어이거나 또는 어미문자가 관련 언어로 차용되기 이전에 다른 언어로 몇 번의 차용을 거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전관계는 멀다.

문자의 차용과 변용은 지구상의 모든 문자의 계통과 유형을 동시에 발전시킨 일련의 과정이자 세계문자발전사를 이끌어 온 동력이다.⁸⁾ 단일기원설에 따라 모든 문자가 초기 어미문자로부터 새로운 언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문자소의 변용을 통해 발전된 후손들이라는 사실에 기댄다면 모든 문자는 <도식 1>의 문자발전단계 중 한 개 이상에 포함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초기 어미문자인 췌기문자(S¹)는 수메르어(L¹)의 음운체계에 따른 문자소(G¹)만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2,500년경 췌기문자가 아카드어에 차용되자 세 번째 단계와 같이 췌기문자(S¹)는 수메르어(L¹)를 표기하던 문자소(G¹) 외에 아카드어(L³)에만 있는 음을 표기하기 위해 변종문자소(VG³)가 추가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발전되는 예는 특정 계통 내의 어미문자(earlier prototype)와 그것으로부터 발전된 후손문자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구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로마알파벳의 원형인 라틴알파벳(S¹)은 초기에는 라틴어(L¹)의 음에 따른 문자소(G¹)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구의 다양한 언어(L³)로 차용되면서 각각의 특정 음을 표기하기 위한 변종문자소(VG³)가 추가되었다. 스페인어에서의 <Ñ>과 독일어에서의 <Ä>, <Ö>, <Ü>, 그리고 <ß> 등이다. 이러한 예는 아랍문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랍문자(S¹)는 아랍어(L¹)의 음을 표기하는 28개의 문자소(G¹)가 있지만, 다른 언어(L³)로 차용된 아랍문자에는 각각의 특정 음을 표기하기 위한 변종문자소(VG³)들이 추가되었다.

8) 피셔(Fischer)는 문자가 다른 사회에 차용되어 새로운 언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문자소의 가감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 필요에 따른 의도적인 결과로 설명한다(Fischer 2001: 33).

<도식 1> 문자발전단계

① $S^1 + L^1 = G^1$

② $S^1 + L^2 = G^1$

③ $S^1 + L^3 = G^1, VG^3$

④ $S^1 + L^4 = G^4 (=VG^4)$

※ S: Script, L: Language, G: Grapheme, VG: Variant Grapheme

출처: (Cho 2012: 53)

특정 문자가 새로운 언어에 차용되었지만 문자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두 번째 단계로서 말레이어(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에 차용된 로마알파벳을 예로 들 수 있다. 로마알파벳(S^1)은 말레이어(L^2)에 차용된 이후에도 26개 문자소(G^1)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차용된 문자의 문자소가 새로운 언어의 음을 전부 표기할 수 있는 경우 문자소의 가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번째 단계는 차용된 문자의 문자소가 새로운 언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전부 교체된 경우이다. 인도의 팔라와문자(S^1)는 인도네시아에 차용된 후 다양한 지역어(L^4)들의 음운체계에 따라 문자소가 전부 새로운 형태(G^4 또는 VG^4)로 교체되었다. 문자소의 전체적인 교체는 새로운 언어의 음운체계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언어사회의 문화적 요소가 문자의 외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Fischer 2001: 145). 이러한 예는 셈문자에서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로 차용되어 발전된 아랍문자, 로마알파벳, 그리고 브라흐미 문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기 4가지 단계의 각각에 해당하는 문자들의 위치는 고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문자들은 특정 어미문자로부터 발전된 후손문자인 동시에 그 자신으로부터 발전된 후손문자들의 어미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문자를 어미문자 또는 후손문자로 바라보는 차이에 따라 그것의 위치가 유동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흐미 문자를 썸문자에서 계통과 유형이 발전된 후손문자로 본다면 네 번째 단계에 위치하지만, 인도의 모든 문자들의 어미문자라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 속한다. 상기 4가지 단계에 비추어보면, 인도네시아의 토착문자인 인도계통문자들은 그것의 어미문자로서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인도의 팔라와문자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거치며 발전된 후손문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도네시아 인도계통문자의 발전경로

인도의 팔라와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400년 동부 칼리만탄의 쿠타이에서 제작된 유파(Yupa) 비문에서이다(Vogel 1918: 231-232). 팔라와문자는 약 4세기에서 9세기까지 인도 남부의 팔라와 왕조가 사용한 문자로서 인도 동남부의 군투르(Guntur)와 칸치푸람(Kanchipuram)에서 사용되었다(Casparis 1975: 13). 인도네시아 발리의 썸비란(Sembiran)에서는 기원전 150년경 인도의 아리카메두(Arikamedu) 지역의 토기가 출토되었다(Ardika 1995: 363). 아리카메두는 팔라와 왕조의 수도였던 군투르와 가깝기 때문에 기원전부터 인도문명이 인도네시아에 전파되면서 팔라와문자의 소개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팔라와문자는 450년경 서부 자와의 치아루테운(Ci-Aruteun) 비문에서도 사용되었는데(Casparis 1975: 18-19), 이들 팔라와문자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어가 아닌 산스크리트어를 기록했기 때문에 문자발전단계 중 변용이 이루어지기 전인 첫 번째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7세기경 남부 수마트라의 스리위자야 왕국이 사용한 팔라와 문자는 이곳의 지역어인 말레이어를 기록했다.⁹⁾ 뿐만 아니라 말레이

어를 기록함에 있어서 몇몇 변종문자소가 출현했는데(Casparis 1975: 21, 25), 이는 문자발전단계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언어로의 변용을 가리킨다. 한편 8세기 중반부터 자와에서는 디노요(Dinoyo) 비문을 통해 자와어를 기록한 카위문자가 사용되었다.¹⁰⁾ 크롬(Krom)은 8세기 초부터 팔라와문자가 점진적으로 자와어에 변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Casparis 1975: 28). 즉, 문자발전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 사이의 과정을 통해 카위문자가 출현한 것이다. 카위문자는 9세기 중반 메당 왕국을 시작으로 13세기 중반까지 카디리(Kadiri) 왕국과 싱아사리 왕국, 그리고 마자파힛 왕국을 거치며 괄목할 사용이 이루어졌다(Hunter 1996: 7-8). 이후 카위문자는 각각 9세기 말과 11세기 초 인근의 순다문자와 발리문자로 발전되었으며, 다른 또 하나의 경로는 약 13세기 말부터 수마트라 지역문자들의 정립에 영향을 주었다(Kumar 1996: XVI).

수마트라에서는 13세기 말 자와의 싱아사리 왕국이 말라유 왕국에 전해준 아디타와르만(Adityawarman) 비문을 통해 카위문자가 이곳의 말레이어 기록에 처음 사용되었다(Kozok 2004: 44). 이후 14세기 말 중부 수마트라에서 제작된 탄중타나(Tanjung Tanah) 문헌¹¹⁾에는 아디타와르만 비문에 사용된 문자와 같은 자와의 문자¹²⁾와 함께

9) 스리위자야 왕국의 팔라와문자는 커두칸부킷(Kedukan Bukit, 683년), 탈랑투위(Talang Tuwo, 684년), 코타카푸르(Kota Kapur, 686년), 그리고 카랑브라히(Karang Brahi, 686년) 비문에 사용되었다(Hussein 1992: 14).

10) 켄(Kem)은 이 문자를 카위문자라고 일컬었다(Casparis 1975: 28). 카위(Kawi)의 어원은 인도의 궁중서사시인 카비야(Kavya)에서 비롯되었다(Suryobudoyo 1996: 14).

11) 탄중타나 문헌은 1941년 4월 9일 네덜란드의 포르후버(Voorhoeve)가 커린치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한 고문헌들 중 하나이다(Voorhoeve 1970: 384). 이후 코죽(Kozok)은 2003년 현장을 방문하여 얻은 탄중타나 문헌의 원본조각을 방사성탄소연대측정해본 결과 제작시기가 1304년부터 1436년 사이로 밝혀졌다. 코죽은 역사적인 정확에 따라 대략 1377년보다 이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Kozok 2004: 43).

12) 아디타와르만 비문에 사용된 문자를 포르후버는 고자와(Old Javanese, Kawi)문자라고 불렀으며(Voorhoeve 1970: 384), 카스파리스는 말라유 문자로 호칭했다(Casparis 1975: 57). 반면, 코죽은 팔라보-누산타라(Pallavo-Nusantara)문자라는 용어를 따른다(Kozok 2004: 39).

수랏올루문자와 비슷한 문자들이 사용되었다(Kozok 2006: 67-68).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13세기 말 카위문자는 아디타와르만 비문을 통해 수마트라에 전해진 후 14세기를 거치면서 수마트라의 제 문자들로 정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 즉, 문자발전단계 중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완전 변용된 네 번째 단계의 문자가 출현한 것이다. 이후 중부 수마트라를 거점으로 한 경로는 바탁 제 문자들의 정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경로는 수랏올루 제 문자들과 람퐁(Lampung)문자로 이어졌다.

<도식 2> 인도네시아 인도계통문자의 발전경로

- 팔라와문자(5세기~) : 동부 칼리만탄 쿠타이, 서부 자와 보고르(Bogor)
- 팔라와문자(7세기~) :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Palembang)
- 카위문자(8세기~) : 동부 자와
 - ↳ • 발리문자(9세기~) : 발리 일대
 - 순다문자(11세기~) : 서부 자와
 - ↳ • 바탁문자(14세기~) : 북부 수마트라
 - 수랏올루문자(14세기~) : 남부 수마트라
 - ? ↳ • 술라파와문자(15세기~) : 남부 술라웨시
 - ↳ • 비마문자(17세기~) : 서부 누사텡가라
 - 엔데문자(17세기~) : 동부 누사텡가라

13) 1275년 말라유 왕국을 굴복시킨 싱아사리 왕국의 군대는 1294년 자와로 돌아오면서 말라유 왕국의 공주인 다라 페탁(Dara Petak)과 다라 징가(Dara Jingga)를 데려왔다. 이후 다라 징가는 싱아사리 왕국의 왕족과 결혼하여 아디타와르만(Adityawarman)을 낳았다. 한편, 1286년 싱아사리 왕국은 아모가파사(Amoghapasa)상(像)을 말라유 왕국에 전달했는데, 이 동상에는 싱아사리 왕국을 칭송하는 내용이 자와의 문자를 통해 말레이어로 기록되어있다. 이후 1347년 아디타와르만은 말라유 왕국을 통치(1347-1376)하면서 아모가파사상 뒷면에 본인을 칭송하는 내용을 기록했다(Kozok 2006: 17-40). 13세기 말부터 15세기까지 자와에서는 싱아사리 왕국에서 마자파힛 왕국으로 계승되면서 많은 양의 카위문자 기록물이 생산(Hunter 1996: 10)된 반면, 같은 시기 남부 수마트라의 스리위자야 왕국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카위문자는 자와의 패권에 의해 수마트라에 소개된 후 수마트라 제 문자들의 정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세기 초 남부 술라웨시에서는 문자발전단계 중 네 번째에 속하는 또 다른 문자인 술라파으파문자가 출현했다(Caldwell 1988: 171). 부기스(Bugis)어와 마카사르(Makassar)어 기록에 사용된 술라파으파문자는 17세기경 고와(Gowa) 왕국의 영향력을 통해 누사팅가라 지역과 부톤(Buton) 등지에 몇몇 후손문자들을 출현시켰다. 비마(Bima)문자와 엔데(Ende)문자, 그리고 부톤에서 종종 사용된 술라파으파문자가 이를 반증한다(Banda 2005: 2, 26; Anceaux 1988: 2).

인도의 팔라와문자에서 시작된 인도네시아 인도계통문자들의 발전경로를 살펴보면 새롭게 출현하는 문자에는 그것의 정립에 영향을 준 어미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세기경 남부 수마트라에서 말레이어를 기록한 팔라와문자는 8세기경 자와어를 기록하는 카위문자 정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시 카위문자는 9세기 말과 11세기 초 인근의 순다문자와 발리문자, 그리고 약 13세기 말에는 수마트라에 유입되어 북부의 바탁문자와 남부의 수랏울루문자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15세기부터 남부 술라웨시에서 사용된 술라파으파문자는 17세기경 괄목할 발전을 이루어 비마문자와 엔데문자 정립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정작 술라파으파문자의 발전에 영향을 준 어미문자는 불확실하다. 학자들의 추측(Casparis 1975: 66; Pelras 2006: 230-231)에 따라 그것의 어미문자를 수랏울루문자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 문자 간의 발전관계가 가까운 증거로서 유형적 유사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피셔(Fischer 2001: 64)의 문자차용 요소를 토대로 두 문자 간의 유형적 유사성을 제시한다.

Ⅲ. 수랏올루문자와 슬라파으파문자 간 유형적 유사성

특정 두 문자 간 공유되는 유형적 유사성은 관련 문자 간의 발전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언어에 차용된 문자는 그 이전의 유형적 특징을 기반으로 변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계통 내에서 더욱 많은 유형적 특징을 공유하는 두 문자가 있다면, 이들의 발전관계는 다른 문자들에 비해 더욱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셔는 특정 어미문자가 그것으로부터 발전되어 새롭게 출현하는 문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적 요소를 ①문자개념, ②문자개념과 표기방향, ③문자체계, ④문자체계와 문자소, ⑤문자체계의 일부분, 그리고 ⑥문자소의 일부분 등으로 규정했다(Fischer 2001: 64). 여섯 가지 요소는 문자의 유형을 결정하고 구분하는 요소로서 특정 두 문자 간에 이러한 특징이 공유되는 정도에 따라 이들의 발전관계가 직접적이거나 또는 가깝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한 채 인도네시아 인도계통문자들 중 몇몇 주요 문자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의 인도계통문자들을 살펴보면 카위문자 이후에 출현한 문자들의 외형은 그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라와문자와 카위문자(발리문자 포함)는 획수가 많고 외형이 복잡한 반면 그 이후의 문자들은 대체적으로 획수가 적고 외형이 간소하다. 그리고 전자는 여전히 권설음(Retroflex) /t/, /th/, /d/, /dh/, /n/과 치마찰음(Dental fricative) /tʰ/, /dʰ/, 그리고 양순마찰음(Bilabial fricative) /pʰ/, /bʰ/를 표기하는 문자소가 있지만, 후자부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팔라와문자가 인도네시아에 차용된 후 발전을 거듭하여 토착문자로 변용된 결과이다.

즉, 문자발전단계에 따르면 카위문자 이후 자와 외부에서 출현한 문자들은 각 지역어의 음운체계와 지역의 문화에 맞게 변용된 네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이 중 북부 수마트라의 바탁문자는 수직선과 평행선, 사선, 그리고 타원형이 조합 및 중복되거나 가감되는 방법으로 문자소의 외형이 정립되었다(Kozok 2009: 89-96). 반면, 남부 수마트라의 수랏올루문자는 대체적으로 우측상단에서 좌측하단으로 이어지는 사선을 기본으로 사선이 좌우대칭으로 중복 및 연속되거나 또는 사선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짧은 선이 더해지는 방법으로 문자소의 외형이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¹⁴⁾

한편, 술라파으파문자는 수랏올루문자처럼 1)사선형태(*ka, ca, ja, ngka*)와 2)사선이 중복된 삼각형태(*ga, nga, pa, na, ba, ra, la, nra*), 3)역삼각형태(*da, ma*), 4)삼각형태가 쌍을 이루는 형태(*nya, wa, ya, a, nca*), 5)삼각형과 역삼각형이 합쳐진 마름모형태(*sa*), 그리고 6)마름모가 쌍을 이루는 형태(*ha*)가 있다. 즉, 문자소의 기본형태는 수랏올루문자처럼 우측상단에서 좌측하단으로 이어지는 사선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¹⁵⁾ 하지만, 몇몇 문자소는 수랏올루문자의 외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다. 술라파으파문자의 *ngka*는 선비강음만 제외하면 수랏올루문자의 *ka*와 형태가 같다. *ca*와 *ja* 또한 두 문자 간의 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 *la*는 술라파으파문자에서는 우측에 작은 삼각형태가 추가된 것 외에 차이가 없다. 계속해서 *ngka*는 수랏올루문자에만 좌측하단에 작은 꼬리형태가 있을

14) 수랏올루문자는 물소 뿔이나 대나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자소는 칼로 새기기 쉽도록 사선에 기본을 둔 각진(*angular*)형태로 발전되었다(Durie 1996: 247).

15) 부기스인들에게 마름모형태(*Sulapaq Eppaq Walasuji*)는 만물(시니피양)에 대한 개념인 언어(시니피에)가 발화되는 사람의 입(소우주)일뿐만 아니라, 천상, 지상, 그리고 지하가 포함된 세계(대우주)를 의미한다(Mattulada 1985: 8-9). 즉, 수랏올루문자의 문자소 기본형태인 사선을 중복시키는 방법을 통해 삼각형, 역삼각형, 그리고 마름모형태를 만들어 부기스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문자소를 정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 두 문자소의 외형은 같다.

양 문자 간의 유형적 유사성 중 두 번째는 선비강음(Prenasalized)을 표기하는 문자소의 존재다. 선비강음을 표기하는 문자소는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과문자에만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두 문자 사이에서 선비강음을 표기하는 문자소의 개념이 공유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수랏울루문자가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되어 술라파으과문자의 정립에 영향을 주면서 선비강음을 표기하는 문자소에 대한 개념이 전해졌을 것이다. 두 문자의 선비강음 문자소는 수랏울루문자에 *ngka, nca, nta, nda, nja, mpa*, 그리고 *mba*가 있으며, 술라파으과문자에는 *ngka, nca, nra*, 그리고 *mpa*가 있다. 일반적으로 술라파으과문자의 선비강음 문자소는 네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남부 술라웨시의 루우(Luwuq) 왕국의 고문헌에는 상기 네 개의 문자소 외에 수랏울루문자처럼 *nta, nda*, 그리고 *nja*를 표기하는 문자소 또한 사용되었다(Noorduynd et al. 1988: 352). 이러한 사실은 수랏울루문자가 표기하는 선비강음과 같은 범위의 선비강음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소가 술라파으과문자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인도계통문자들 중 두 문자 사이에서만 같은 범위의 선비강음을 표기하는 문자소가 공유되는 사실은 두 문자 간의 발전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으면 발생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두 문자의 유형적 유사성은 문자소의 배열순서이다. 팔라와문자와 카위문자, 그리고 발리문자까지는 각 문자 나름의 배열순서를 가진다.¹⁶⁾ 하지만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과문자의 문자소는 그 배열순서가 비슷하다. 수랏울루문자의 문자소 배열순서는 *ka, ga, nga, ta, da, na, pa, ba, ma, ca, ja nya, sa, ra, la, ya, wa, ha, mba, ngga, a, mpa, ngka, nca, nda, nta, nja, gha, nra, nsa*이며

16) 카위문자의 문자소 배열순서는 *ha, na, ca, ra, ka, da, ta, sa, wa, la, pa, dha, ja, ya, nya, ma, ga, ba, tha, nga*이다(Behrend 1996: 162).

(Suwandi 2003: 21),¹⁷⁾ 술라파으파문자는 *ka, ga, nga, ngka, pa, ba, ma, mpa, ta, da, na, nra, ca, ja, nya, nca, ya, ra, la, wa, sa, a, ha*이다 (Brink 1943). 먼저, 양 문자의 문자소 순서는 *ka, ga, nga...*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순서 때문에 수랏올루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는 양 사회에서 카가응아(Kaganga)문자로 불리기도 한다.¹⁸⁾ 수랏올루문자에서 문자소 *ka, ga, nga*와 선비강음 문자소 *mba* 사이에 위치하는 문자소 *ta, da, na / pa, ba, ma / ca, ja, nya*는 조음위치가 같은 음을 표기하는 문자소로서 세 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조음위치가 같은 음을 표기하는 문자소가 세 개씩 쌍을 이루는 것은 비록 그 배열순서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술라파으파문자의 *ka, ga, nga* 다음에 위치하는 문자소 *pa, ba, ma, (mpa) / ta, da, na, (nra) / ca, ja, nya (nca)*에서도 적용된다. 특정 문자의 문자소 배열순서는 관련 문자가 다른 언어로 차용되었어도 문자발전단계 중 완전한 변용이 일어나는 네 번째 단계 이전에는 크게 변경되지 않는다. 페니키아문자에서 발전되어 다양한 서구어들을 표기하는 로마알파벳은 비록 각 문자소의 명칭(‘알파’, ‘베타’... / ‘에이’, ‘비’... / ‘아’, ‘베’...)은 서로 다르지만 문자소의 배열순서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즉, 서구어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로마알파벳은 각 문자체계 간 문자소의 배열순서가 변경될 만큼의 변용이 발생하는 네 번째 단계까지는 이르지

17) 남부 수마트라에서 수랏올루문자는 9개의 제 문자들로 나뉜다. 이들은 각각 ①무시 라와스(Musi Rawas), ②무시 울루(Musi Ulu), ③파스마(Pasemah), ④파가르 알람(Pagar Alam), ⑤스멘데(Semende), ⑥오간(Ogan), ⑦오간 코머링 울루(OKU, Ogan Koming Ulu), ⑧페니안딩안(Penyandingan), 그리고 ⑨오간 코머링 일리르(OKI, Ogan Koming Ilir)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9개의 제 문자들은 *ka*에서 *nca*까지의 문자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각 문자들에 따라 관련 문자소의 유무가 다르다(Suwandi 2003: 26-27).

18) 자스판(Jaspan 1964)은 수랏올루문자의 문자소가 *ka, ga, nga...*로 시작되는 것에 착안하여 ‘카가응아’문자로 호칭했다. 실제 수랏올루문자는 남부 수마트라에서 ‘카가응아’문자로 불린다. 술라파으파문자 역시 남부 술라웨시에서 ‘카가응아’문자로 호칭되기도 한다.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 간 발전관계 역시 완전한 변용이 일어나는 네 번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카위문자와 수마트라 제 문자들 간의 문자소 배열순서가 변경된 것을 상기하면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 사이에 규칙성이 있는 문자소 배열순서는 두 문자 간의 발전관계가 전자보다는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기 제시된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 간 공유되는 유형적 유사성은 1)문자소의 외형과 2)선비강음 문자소, 그리고 3)문자소의 배열순서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피셔(Fischer 2001: 64)가 제시한 문자차용의 여섯 가지 요소인 ①문자개념, ②문자개념과 표기방향, ③문자체계, ④문자체계와 문자소, ⑤문자체계의 일부분, 그리고 ⑥ 문자소의 일부분 중 문자체계와 문자소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 사이에 유형적 유사성이 공유되는 사실은 문자발전단계의 첫 번째 단계의 어미문자인 전자와 그것의 유형적 특징을 기반으로 변용된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후자 간의 발전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반영한다.

IV.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 간 발전경로

수랏울루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 간의 유형적 유사성에 따라 두 문자를 발전관계가 가까운 관계로 전제한다면, 수랏울루문자는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남부 술라웨시에 유입되어 술라파으파문자 정립에 영향을 주었을까?¹⁹⁾ 이에 앞서, 남부 술라웨시 고와 왕국의 9대

19) 남부 술라웨시에서는 술라파으파문자 외에 장양장양문자, 빌랑빌랑문자, 그리고 세랑문자가 사용되었다. 빌랑빌랑문자는 19세기 부기스 왕족인 콜릭 푸지에(Collig Pujie)가 화란 식민정부로부터 왕국 문서들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문자체계였으며(Rahman 2008: 124), 세랑문자는 17세기 초 이슬람의 유입과 함께

왕인 ‘투마파리시 칼론나(Tumapaqrisiq Kallonna, 1511-1548)’의 실록을 살펴보면 문자창제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우리의 임금, 그리고 그의 항무관이자 수상인 다앵 파마테(Daeng Pammate)는 최초로 전시체제 및 국가정치기반의 법률을 제정하고 론타라(Lontaraq)를 창제하였다(Rahman et al. 1996: 59).” 본 기록은 남부 술라웨시의 문자기원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주목되었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론타라’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법률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Akhmar 2018: 40). 남부 술라웨시에서 ‘론타라’는 ‘문자’라는 의미 외에 ‘기록물’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조태영 2015: 67-68).

하지만 단어 ‘론타라’를 법률서가 아닌 ‘문자’로 해석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문자의 개념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것이다. 펠라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10세기 초 스리위자야 왕국의 팔라와문자가 필리핀에까지 소개될 정도였다면 비슷한 시기에 팔라와문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의 개념이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Pelras 2006: 231). 문자차용의 요소에는 문자의 개념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Fischer 2001: 64) 16세기 초중반경 다앵 파마테는 그 이전 남부 수마트라에서 사용된 팔라와문자 또는 그것으로부터 그 이후에 발전된 어느 특정 문자를 통해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된 ‘문자의 개념’을 토대로 간접 창제했을 것으로 보인다(Mattulada 1985: 10).

역사적 사실유무를 떠나 상기 실록의 내용을 문자단일기원설에 기대어 살펴보면 술라파으파문자의 정립은 외부 문자의 영향을 통

아랍문자를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에 맞게 개량한 문자였다(조태영 2015: 70). 그리고 장양장양문자는 17세기경 고와 왕국을 중심으로 마카사르어를 기록하는데 사용된 문자였다(조태영 2015: 69). 반면에 술라파으파문자는 15세기 초부터 부기스어뿐만 아니라 마카사르어와 만다르(Mandar)어를 포함하여 남부 술라웨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문자였다. 처음 사용된 시기만을 보더라도 술라파으파문자가 남부 술라웨시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 이루어졌으며 그 외부 문자는 인도계통문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형적으로 술라파으파문자가 인도계통문자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시기적으로 다엥 파마테가 문자를 만든 시기로 추정되는 16세기 초중반경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발전되고 사용된 문자는 인도계통문자(수마트라 제 문자들)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기 실록의 내용이 남부 술라웨시의 문자창제에 대한 증언이라고 해도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발전된 인도계통문자 중 하나를 기반으로 이루어 낸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칼드웰은 남부 술라웨시의 술라파으파문자는 약 15세기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Caldwell 1988: 171). 그렇다면 펠라스의 추측처럼 일찍이 팔라와문자를 통한 문자의 개념이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되었을 가능성과 제 3 장에서 제시한 수랏울루 문자와 술라파으파문자 간의 유형적 유사성에 근거한다면, 술라파으파문자의 어미문자는 15세기 이전 남부 수마트라에서 발전된 수랏울루문자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랏울루문자는 어떻게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일까? 과거 문자의 전파는 지역 간 경제, 정치, 종교 및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교류되도록 인프라 시설을 건설 및 통제할 수 있는 왕국을 통해 이루어졌다(Casparis 1975: 1; Fischer 2001: 66). 역사적으로 남부 수마트라와 남부 술라웨시 두 지역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국의 존재는 부재하다. 하지만 왕국을 통한 문자의 전파가 인위적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두 지역 간 역사적 접촉 및 교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찾아보면 일찍이 말레이인들이 인도네시아 군도에 언어-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부기스인들이 바닷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먼저 말레이인들이 남부 술라웨시에 정착한 시기는 16세기 중반으로 알려져 있다(Sewang 2005: 1; Nomay 2009: 24-25). 이후 이들

은 남부 술라웨시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이곳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Mattulada 1991: 98).²⁰⁾ 1603년 고와 왕국에 이슬람을 전파한 세 명의 전도자(Mubalig) 역시 수마트라 출신의 말레이인들이었다(Sewang 2005: 2).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남부 술라웨시를 방문하거나 정착한 말레이인들이 수랏울루문자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16세기경 수마트라의 대부분 지역은 이미 이슬람이 전파된 이후였기 때문에 남부 술라웨시에 정착한 말레이인들은 무슬림들이었다. 수마트라에서는 이슬람이 유입된 이후 아랍문자를 변경한 자위(Jawi)문자 사용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전 인도계통 문자로부터 발전된 토착문자 사용의 감축과정이 일어났다(Durie 1996: 247; Proudfoot et al. 1996: 69).²¹⁾ 따라서 말레이 무슬림들이 남부 술라웨시에 수랏울루문자를 소개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술라과오파문자는 15세기 초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16세기 중반 말레이인들이 수랏울루문자를 소개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16세기 이전의 말레이인들이 남부 술라웨시와 교류한 기록이 있을까? 부기스인들의 서사시(Epic) 라 갈리고(La Galigo)에는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의 자와 사부로(Jawa Saburo), 자와 치나(Jawa Cina), 그리고 자와 파타니(Jawa Patani) 상인들이 교역상품으로 말레이 용단과 직물, 사향기름(Kesturi), 안식향(Kemenyan), 그리고 화약 등을 남부 술라웨시로 가져오는 장면이 등장한다(Liebner 2003: 398). 당시 부기스인들에게 자와는 자와 섬만이 아닌 수마트라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였다(Liebner 2003:

20) 말레이인들은 대대로 고와 왕국의 서기관직을 맡았다. 당시 자위문자 전통을 이미 발전시킨 말레이인들은 아랍문자를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에 변용하여 세랑문자를 발전시켰다(Cho 2012: 98).

21)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도래 이전을 무지(Jahiliah)의 시기로 규정한다. 일례로 1821년부터 1937년까지 서부 수마트라에서 발발한 파드리(Padri) 전쟁에서는 이슬람 이전의 문화적 요소들을 대대적으로 없앴다.

399). 말레이 파타니(Patani)를 일컫는 파타니라는 단어가 자와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교역상품 중 말레이 용단과 직물, 그리고 안식향(Kemenyan)은 대부분 수마트라의 특산물이다. 라 갈리고는 19세기경 술라파으파문자로 기록되었지만,²²⁾ 14세기경부터 구전으로 전승되어왔다(Pelras 2006: 63). 이러한 사실은 말레이인들이 적어도 14세기경 교역을 위해 남부 술라웨시에 방문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14세기경 남부 수마트라는 이슬람이 완전히 전파되기 이전인 반면, 수랏올루문자의 사용은 널리 확산된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 남부 술라웨시를 방문한 말레이인들이 수랏올루문자를 소개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있다. 라 갈리고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료는 아니지만, 문학 역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기록된다는 점에서 상기 내용은 수궁이 간다.

수랏올루문자를 평생 연구한 수완디(Suwandi)는 무역거래를 위해 남부 수마트라를 방문한 부기스인들이 수랏올루문자를 남부 술라웨시에 전했을 것으로 추측한다.²³⁾ 그의 설명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군도의 무역중심지였던 남부 수마트라의 무시(Musi)강 어귀에는 무역에 탁월한 부기스인들이 자주 방문했으며, 수랏올루문자는 상거래에 사용되면서 남부 술라웨시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남부 수마트라는 7세기경 스리위자야 왕국 시대부터 인도네시아 군도의 무역중심지였다. 이후 14세기경 마자파힛 왕국의 패권이 이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스리위자야 왕국이 무너지자 이곳은 인도네시아 군도의 무역중심지로서 더욱 급부상하게

22) 세계 최장의 서사시 기록물로 추정되는 라 갈리고는 19세기 중반 부기스 왕족인 출릭 푸지에게 술라파으파문자로 기록했다(Pelras 2006: 37). 2011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3) 인도네시아 교사연합대학교(Universitas Persekutuan Guru Republik Indonesia) 남부 수마트라 루복링가우(Lubuk Linggau) 캠퍼스의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할 수완디는 2019년 5월 11일 필자와의 대화에서 무역을 위해 남부 수마트라를 방문한 부기스인들이 수랏올루문자를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되었다.²⁴⁾ 코족은 수랏올루문자가 아디티야바르만 비문 이후 즉, 14세기경부터 남부 수마트라에서 상거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바 있는데(Kozok 2004: 45),²⁵⁾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팔렘방의 무시강 유역과 방카(Bangka) 인근에서는 14세기경 수랏올루문자로 기록된 주석(Tin)판이²⁶⁾ 대거 발견되고 있다.²⁷⁾

남부 술라웨시 고와 왕국은 15세기부터 해상왕국으로의 기반을 다졌으며 16세기에는 해상왕국으로 성장하여 17세기에는 동부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고와왕국이 해상왕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15세기경 왕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회활동을 기록하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인 문자의 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고와 왕국의 실록에도 16세기 초 9대 왕인 ‘투마파리시 칼론나(1511-1548)’ 시절 왕국의 법률을 제정하고 전시체제를 구축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Rahman et al. 1996: 59). 이러한 사실은 그 이전 시기부터 왕국의 행정기반을 다질 수 있는 수단인 문자의 개념이 수용되지 않았다면 왕국의 법률제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을 시사한다. 즉, 적어도 14세기경 또는 그 이전 시기

24) 14세기 하얏우룩(Hayam Wuruk, 1334-1389)이 통치하던 시기의 마자파힛 왕국은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다(Riana 2009). 스리위자야 왕국시대부터 무역중심지였던 말라카해협은 14세기 이후 마자파힛 왕국의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네시아 군도의 무역중심지로서 더욱 급부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25) 1940년 화란식민정부가 팔렘방에서 발행한 마을과 촌락 단위의 이장과 촌장의 자격요건 지침서 5장 2절에는 수랏올루문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Peratoeran-Peratoeran Resident van Palembang 1940/06/20, p.33). 본 지침서는 당시 수랏올루문자가 남부 수마트라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비록 당시 20세기 중반은 자위문자의 전통이 자리 잡은 이후였고 로마알파벳 역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랏올루문자는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았다면 화란식민정부가 굳이 이러한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6) 남부 수마트라와 인접한 방카지역은 주석 생산지로 유명하다.

27) 주석판에 새겨진 문자는 13세기 아디티야바르만 비문에 사용된 문자와 14세기 탄중타나 문헌에 사용된 수랏올루문자이다(Andhifani 2018: 76). 이를 통해 주석판은 아무리 늦어도 14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에 남부 수마트라를 방문한 부기스인들은 수랏울루문자를 접한 후 수랏울루문자 자체 또는 적어도 문자에 대한 개념을 남부 슬라웨시에 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남부 수마트라의 팔렘방으로부터 말라카해협으로 흐르는 무시강 하구에는 부기스인들의 정착지가 존재한다. 반유아신(Banyuasin)군(郡)에 속하는 텔룩파요(Teluk Payo), 송아이세묵(Sungai Semut), 무아라바루(Muara Baru), 그리고 무아라송상(Muara Sungsang) 마을의 주민은 대부분이 부기스인들이다.²⁸⁾ 이 중 무아라바루의 이장(里長)인 안디(Andi)는 부기스인들은 15세기경부터 남부 수마트라의 무시강 하구에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²⁹⁾ 그의 설명에 의하면, 상거래를 위해 말라카해협을 찾아온 부기스인들 중 일부는 리아우(Riau), 잠비(Jambi), 조호르(Johor), 그리고 남부 수마트라 등지에 정착했다고 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군도 내 이루어진 부기스인들의 이산(離散, diaspora)은 15세기부터 시작하여 17세기 중반 고와 왕국이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VOC)에 패배했을 때까지 이어졌다(Kesuma 2004: 137). 남부 수마트라를 포함한 말라카해협 인근이 7세기경 스리위자야 왕국시대부터 무역중심지로 알려졌던 사실을 상기하면 바닷사람이자 상거래에 탁월한 부기스인들은 15세기 이전부터 이곳을 방문했을 것이다.

수랏울루문자가 남부 슬라웨시에 소개된 요인이 라 갈리고의 기록처럼 14세기경 상거래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말레이인들에 의한

28) 남부 수마트라의 지방어는 크게 1)말레이어, 2)코머링어, 3)자와어, 4)부기스어, 그리고 5)발리어로 나뉜다. 이 중 부기스어가 사용되는 지역은 반유아신군(郡)의 텔룩파요(Teluk Payo)와 퍼누구안(Penuguan) 마을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다 (Aminulatif 2017: 33).

29) 무아라바루의 이장인 안디(Andi)는 2020년 2월 28일 필자와의 대화에서 부기스인들은 15세기경부터 남부 수마트라의 무시강 하구에 정착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이곳의 비옥한 공지(空地)에 대규모 팜유농사와 인근의 말라카해협에서 수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것인지 아니면, 남부 수마트라를 방문한 부기스인들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말레이인과 부기스인이 양 지역을 상호 방문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양측의 상호교류에 의해 수랏올루문자의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³⁰⁾ 수랏올루문자가 양측의 무역거래를 통해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납득의 소지가 있다. 로마알파벳의 전신인 페니키아문자 역시 무역을 통해 유럽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랏올루문자가 남부 술라웨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양측의 상호교류를 발생시켜준 또 하나의 요인으로 14세기경 말라카해협을 중심으로 남부 수마트라에 패권을 형성한 자와 왕국(싱아사리 왕국부터 마자파힛 왕국)의 인도네시아 군도에 걸친 네트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¹⁾ 마자파힛 왕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말라카해협이 무역 중심지로서 인도네시아 군도 내에 더욱 확고해지자 말레이인과 부기스인의 양 지역의 상호교류는 더욱 탄력을 얻었을 것이다. 즉, 14세기 남부 수마트라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수랏올루문자는 무역거래를 위해 양 지역을 방문한 말레이인과 부기스인의 상호교류라는 인위적 요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부 술라웨시에 전파되었으며, 이후 술라파으파문자의 정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V. 나오는 말

본고는 남부 술라웨시의 토착문자인 술라파으파문자의 어미문자

30) 헌터(Hunter) 역시 수랏올루문자가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된 것은 말레이인들과 부기스인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Hunter 1996: 12).

31) 인도네시아 군도에 네트워크를 형성한 마자파힛 왕국은 하얌우룩(1334-1389)이 통치하던 14세기 중반이 전성기였다. 이 시기는 13세기말 남부 수마트라에서 아디타와르만 비문 이후 수랏올루문자가 발전한 시기와 15세기 남부 술라웨시에서 술라파으파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중간 시기이다.

가 남부 수마트라의 수랏올루문자일 것이라는 카스파리스(Casparis 1975: 66), 헌터(Hunter 1996: 12), 그리고 펠라스(Pelras 2006: 230-231) 등의 추측을 근거로 가능성 있는 그 발전경로를 소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두 문자체계가 인도네시아의 다른 인도계통문자들보다 발전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피셔(Fischer 2001: 64)의 ‘문자차용의 요소’를 토대로 이들의 유형적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유형적으로 두 문자가 공유하는 문자소 형태의 유사성, 선비강음 표기 문자소, 그리고 문자소 배열순서의 유사성은 두 문자 간의 발전관계가 다른 인도계통문자들보다 더욱 가깝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유형적 유사성을 근거로 두 문자의 발전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본고는 수랏올루문자가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된 인위적 요인으로 말레이인과 부기스인의 상호교류에 주목했다. 14세기경부터 말레이 상인들이 남부 술라웨시를 방문한 사실과 같은 시기 부기스인들 역시 남부 수마트라에 정착했다는 사실은 수랏올루문자가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될 수 있었던 경로를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14세기 말을 시작으로 발전된 수랏올루문자는 15세기경 말레이인과 부기스인의 상호교류를 통해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되어 술라파으파문자의 정립에 영향을 주었다.

인도네시아의 인도계통문자들 중 술라파으파문자의 정립에 영향을 준 어미문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유형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부 수마트라의 수랏올루문자를 그것의 어미문자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랏올루문자가 남부 술라웨시에 소개된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가 많지 않아 가능성 있는 경로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자의 전파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상인과 바닷사람으로 알려진 말레이인과 부기스인의 상호교류를 수랏올루문자 전파의 인위적 요인으로 주목한 점은 후행연구를 위한 청사진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종성. 1999. 『문자학개요』. 서울: 한국문화사.
- 조태영. 2015. “남부 술라웨시 전통문자의 형성과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25(3): 47-89.
- Akhmar, Andi Muhammad. 2018. *Islamisasi Bugis: Kajian Sastra Atas La Galigo Versi Bottinna I La Déwata Sibawa I Wé Attaweq*. Jakarta: Yayasan Pustaka Obor Indonesia.
- Aminulatif. 2017. *Pemetaan Bahasa-Bahasa Daerah di Sumatera Selatan*. Palembang: Balai Bahasa Provinsi Sumatera Selatan.
- Anceaux, J. C. 1988. *The Wolio Language Outline of Grammatical Description and Texts (Second Edition)*.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Andhfani, Wahyu Rizky. 2018. “Identitas Masyarakat Sumatera Selatan: Kajian Epigrafis atas Unsur-Unsur Keislaman pada Prasasti Ulu.” Ph. D. Dissertation. Palembang: Universitas Islam Negeri Raden Fatah.
- Ardika, I Wayan. 1995. “Indonésie The Link between Arikamedu and Sembira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82(1): 363-364.
- Banda, Maria Matildis. 2005. *Deskripsi Naskah dan Sejarah Perkembangan Aksara Ende Flores Nusa Tenggara Timur*. Jakarta: Djambatan.
- Behrend, T. E. 1996. “Textual Gateways: The Evolution of Javanese Manuscripts.” Ann Kumar and John H. McGlynn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161-200.

- Brink, H. van den. 1943. *Dr. Benjamin Frederik Matthes: Zijn leven en arbeid in dienst van het Nederlandsch Bijbelgenootschap*. Amsterdam: Nederlandsch Bijbelgenootschap.
- Caldwell, Ian. 1988. "South Sulawesi AD 1300-1600: Ten Bugis Texts." Ph. D. Dissertation.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Casparis, J. G. de., 1975 *Indonesian Palaeography: A History of Writing in Indonesia from the Beginings to C. A.D. 1500*. Leiden: E. J. Brill.
- Cho, Taeyoung. 2012. *Aksara Sérang dan Perkembangan Tamadun Islam di Sulawesi Selatan*. Yogyakarta: Penerbit Ombak.
- Durie, Mark. 1996. "Ancient Links: The Mystery of South Sumatra." Ann Kumar and John H. McGlynn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247-252.
- Fischer, Steven Roger. 2001. *A History of Writing*. London: Reaktion Books Ltd.
- Gelb, Ignace Jay. 1952. *A Study of Writing: The Foundation of Grammat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nter, Thomas M. Jr. 1996. "Ancient Beginnings: The Spread of Indic Scripts." Ann Kumar and John H. McGlynn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3-12.
- Hussein, Ismail. 1992. *Sejarah Pertumbuhan Bahasa Kebangsaan Kita*.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Jaspan, M. A. 1964. *Folk Literature of South Sumatra Redjang Ka-Ga-Nga Texts*.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Kesuma, Andi Ima. 2004. *Migrasi dan Orang Bugis*. Yogyakarta: Penerbit Ombak.
- Kozok, Uli. 2004. "A 14th Century Malay Manuscript from Kerinci." *Archipel* 67: 37-55.
- Kozok, Uli. 2006. *Kitab Undang-Undang Tanjung Tanah, Naskah Melayu yang Tertua*. Jakarta: Yayasan Obor Indonesia.
- Kozok, Uli. 2009. *Surat Batak, Sejarah Perkembangan Tulisan Batak Berikut Pedoman Menulis Aksara Batak dan Cap Si Singamangaraja XII*. Jakarta: Kepustakaan Populer Gramedia.
- Kumar, Ann. 1996. "Introduction." Ann Kumar and John H. McGlynn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XV-XXII.
- Labrousse, Pierre. 2001. "Sejarah Kamus Melayu dan Indonesia." Daniel Perret and Puteri Rashidah Megat Ramli (eds.), *Hubungan Budaya dalam Sejarah Dunia Melayu*.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164-210.
- Liebner, Horst H. 2003. "Berlayar ke Tompoq Tikkaq: Sebuah Episode La Galigo." Nurhayati Rahman, Anil Hukma, and Idwar Anwar (eds.), *La Galigo: Menelusuri Jejak Warisan Sastra Dunia*. Ujung Pandang: Hasanuddin University Press. 373-414.
- Mattulada. 1985. *La Toa: Satu Lukisan Analitis Terhadap Antropologi Politik Orang Bugis*. Yogyakarta: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 Mattulada. 1991. *Menyusuri Jejak Kehadiran Makassar dalam Sejarah*. Ujung Pandang: Hasanuddin University Press.

- Nomay, Usman. 2009. *Orang Melayu di Makassar Abad XVI-XVII*. Yogyakarta: Penerbit Ombak.
- Noorduyn, Jacob and Salim, Muhammad. 1988. "Special Buginese Characters in Luwu Manuscripts."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van Nederlandsch-Indië* 144(2/3): 351-352.
- Othman, Mohd. Yatim and Halim, Nasir Abdul. 1990. *Epigrafi Islam Terawal di Nusantara*.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Pelras, Christian. 2006. *Manusia Bugis*. Jakarta: NALAR.
- Peratoeran-Peratoeran Resident van Palembang. 1940 June 20.
- Proudfoot, Ian and Hooker, Virginia. 1996. "Mediating Time and Space: The Malay Writing Tradition." Ann Kumar and John H. McGlynn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49-78.
- Rahman, Ahmad and Salim, Muhammad. 1996. *Pelestarian dan Perkembangan Aksara Lontarak di Sulawesi Selatan*. Jakarta: Departemen Pendidikan dan Kebudayaan.
- Rahman, Nurhayati. 2008. *Retna Kencana Colliq Pujie Arung Pancana Toa 1812-1876: Intelektual Penggerak Zaman*. Makassar: La Galigo Press.
- Riana, I Ketut. 2009. *Kakawin Dēśa Warṇnana uthawi Nāgara Kṛtāgama Masa Keemasan Majapahit*. Jakarta: Penerbit Buku Kompas.
- Schmitt, Alfred. 1980. *Entstehung und Entwicklung von Schriften*. Köln: Böhlau.
- Sewang, Ahmad M. 2005. *Islamisasi Kerajaan Gowa Abad XVI*

- sampai Abad XVII*. Jakarta: Yayasan Obor Indonesia.
- Suryobudoyo, Supomo. 1996. "Sovereignty of Beauty: Classical Javanese Writings." Ann Kumar and John H. McGlynn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13-32.
- Suwandi. 2003. "Huruf Ulu dan Perkembangannya di Sumatera Selatan." *Lokakarya Aksara Daerah Sumatera Selatan*. Pagar Alam, 2003 June 1-2.
- Tol, Roger. 1996. "A Separate Empire: Writings of South Sulawesi." Ann Kumar and John H. McGlynn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213-230.
- Vogel, J. Ph. 1918. "The Yupa Inscriptions of King Mulavarman, from Koetei (East Borneo)."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van Nederlandsch-Indië* 74(1): 167-232.
- Voorhoeve, Petrus. 1970. "Kerinjji Documents."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van Nederlandsch-Indië* 126(4): 369-399.

(2020.03.29. 투고, 2020.04.08. 심사, 2020.04.24. 게재확정)

<Abstract>

Revisiting the Develop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urat Ulu* Script and the *Sulapaq Eppaq* Script

CHO Tae Young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Sulapaq Eppaq* script of South Sulawesi is a variant among the Indic *Pallawa* based Indonesian syllabaries. It is however, unclear which script among the syllabaries had been an earlier prototype to develop the *Sulapaq Eppaq* script. This paper revisits the development path of the *Sulapaq Eppaq* scrip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urat Ulu* script of South Sumatra was the earlier prototype. Typologically, both scripts share a series of letters for prenasalized consonants, and have similarities in the form and order of the letters. The typological similarities represent that the development between both scripts is closely linked. Historically, the Malay people of South Sumatra and the Buginese of South Sulawesi have been known as traders and sea-people in the archipelago. The Malay traders have visited to South Sulawesi since the fourteenth century, while the Buginese have settled around the downstream of Musi river in South Sumatra since the fifteenth century. It is consequently assumed that the *Surat Ulu* script spread in South Sumatra around the fourteenth century was introduced by

both traders into South Sulawesi. The *Surat Ulu* script thereafter had influenc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ulapaq Eppaq* script.

Key Words: Monogenesis of Writing, Factors of Borrowing Writing, *Sulapaq Eppaq* Script, *Surat Ulu* Script, Indic-based Indonesian Syllabaries